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결성과 확대

홍영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89페이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 현시기 지구의 서반구에 위치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배우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속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기층조직으로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결성되고 확대되였다.

1970년 8월 13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발표 3돐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조직된 때로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사업은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로 급속히 확대되어갔다. 특히 가이아나와 베루 등의 나라들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결성되였다.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가이아나의 정당, 단체를 비롯한 각계인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우리 혁명의 투쟁경험을 자기 나라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사업이 적극 추

진되였다.

1977년 6월 10일 가이아나에서는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센터가 조직되였다.

베루에서도 1980년대에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속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후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적극화되였다.

특히 베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1987년 8월 14일 김정일동지문예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결성모임에서 연구소조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문학예술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교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칭송하면서 김정일동지문예사상연구소조의 결성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것은 자기들의 커다란 기쁨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문예사상이 베루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연구소조는 위대한 장군님의 문예사상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베루인민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하며 소조대렬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을 기화로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였으나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에 대해 더욱 절감하면서부터 보다 급속히 확대되였다.

1994년 3월 17일 가이아나의 꼴든 그로우브초등학교에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교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모임이, 6월 27일 조지타운시에서는 가이아나 이스트 루임베르 가든즈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모임이, 그 다음해인 1995년 2월 7일에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가이아나 아메리카인디안행동운동의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모임이, 1997년 2월 9일에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가이아나 파텐서 **김정일**동지청년운동사상연구소조결성모임이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가이아나 레잉어비슈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1999. 1), 훌륭한록색 가이아나당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2000. 1), 가이아나종합대학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2001. 2) 등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연이어 조직되었다.

1990년대 베루에서도 주체사상만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라는 확고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라 수많은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결성되게 되었다.

1993년 6월 14일 로시안데스데 우안카요종합대학 법학부 강당에서는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는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1996년 1월 23일 수도 리마에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김일성**주의연구소조로 개칭하는 모임이 진행된데 이어 3월 20일에는 치콜라요종합대학의 심리학부, 교육학부, 법학부들에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학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2002년 1월 8일에는 우야쵸주체사상연구문화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2000년 6월 15일 리마에서는 김정숙녀사활동연구소조결성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이 시기 니까라과, 콜롬비아, 메

히꼬,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비롯한 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사상과 령도, 품모의 위대성에 대해 열렬히 흠모하고 끝없이 격찬하면서 여러 형태의 소조들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리었다.

니까라과에서는 1994년 8월 27일에 **김정일**주의연구소조가 결성되었는데 이날 결성모임에서 니까라과 추안 마수엘메나 합창단 단장은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면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령도자의 존함을 연구소조에 모시게 된것은 우리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영원히 그이의 혁명사상의 신봉자, 전파자로 살며 투쟁할것이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199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51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김정일**문화센터결성모임에서는 «센터의 선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항상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고 주체사상의 심화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의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보급하는데 있다.»는 공보를 채택하였다.

메히꼬의 뿌에블라시에서는 2001년 6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7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주체철학연구소결성모임이, 에콰도르의 파야길에서는 2002년 11월 16일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1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85돐에 즈

음하여 주체의 청년전사들의 소조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그뿐만아니라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2003. 1. 28),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이달고주소조(2007. 2. 3), 베네수엘라주체사상연구센터(2008. 10. 4),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2011. 6. 13) 등이 조직되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사업이 전대륙적인 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전국적성격을 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결성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도 힘있게 전개되었다.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은 매개 나라안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연구소조들의 활동경험과 성과들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며 소조들이 진행하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라를 단위로 하여 조직된 연구단체이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들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게 된것은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게 됨에 따라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서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더욱 높아진것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1978년 2월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창립을 위한 전라틴아메리카대륙회의가 꼬스파리까의 수도 썬 호세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는 당시 라틴아메리카기자련맹 서기장인 조선인민과의련대성라틴아메리카위원회 위원장, 빼루민

족해방전선 위원장인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에파도르끼또종합대학 전 총장이며 조선통일지지에파도르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의 13개 나라 정당, 사회단체인사들, 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1977년 평양에서 열렸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총화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대륙적인 범위에서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창립선언과 규약이 채택되었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의 창립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라틴아메리카인민들속에 보급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되었으며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중대한 사변으로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창립된 후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들의 결성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1981년 3월 5일 가이아나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해 5월 30일 파나마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 뿔력불가담운동에 관한 전국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보다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주체사상연구파나마전국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위원회지도기관도 선거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들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적극화

되었다. 그것은 1995년 2월 3일 베루의 수도 리마에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김정일**주의연구전국협회결성모임에서 베루 피데리코 빌라데알종합대학 소조위원장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연구보급사업들이 베루 인민들속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환경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김정일**주의연구전국협회결성모임을 가지게 되는것은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크나큰 경사이며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베루에서 **김정일**주의연구전국협회를 결성하게 된것은 현시대의 요구를 따른것이라고 지적하고 협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밖에도 2001년 5월 10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2009년 4월 3일 메히코의 수도 메히코시에서 주체사상연구메히코전국조정위원회가 결성된것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주체사상연구전국조직들이 수많이 결성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

조직들이 끊임없이 결성되고 급속히 확대 발전하게 된 사실들은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현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막을수 없는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결성과 확대는 이 지역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광범히 조직 진행해나갈수 있는 사회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반미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게 하는것과 함께 세계적범위에서 날로 확대되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결성과 활동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현시대,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